

더불어
민주당 제21대 대선 선대위 이재명 후보 직속
K문화강국위원회 보도자료
위원장 유홍준 (前 문화재청장 / 명지대 석좌교수)

배포일 : 2025.05.08. 오전9시

배포 즉시 보도 가능

제21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K문화강국위원회
유홍준 위원장 주재 기자간담회 개최...
“문화가 빛이 되는 나라” 슬로건 걸고 5대 비전 발표한다

- ▲ 유홍준 위원장, 5월 9일(금)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 연다
- ▲ K문화강국위원회 슬로건 및 5대 비전 발표... ‘이재명 후보와 유권자 사이에 문화의 길 놓을 것’

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직속 기구인 ‘K문화강국위원회’의 유홍준 위원장이 주재하는 기자간담회가 5월 9일 오후 2시,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다.

이번 행사는 유홍준 위원장이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국민과 언론에게 인사하는 첫 공식석상 자리가 될 예정이다.

유홍준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제3대 문화재청장을 지냈고 현재 명지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‘나의 문화유산답사기’ 시리즈를 집필한 국내 대표 문화유산 전문가이자 문화정책가이다.

K문화강국위원회는 이재명 후보가 K-컬처와 콘텐츠 육성 등 문화강국 실현 의지를 밝혀온 만큼 이를 정책적·조직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.

이 후보의 문화강국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 공약을 발굴하여 중앙 선대위에 정책을 제안하고, 발표된 공약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후보에게 전달할 계획이다. 또한 후보와의 만남·지역별 문화정책 간담회 등 문화강국 캠페인 일정을 기획하여 후보와 국민 사이를 잇고, 문화 관련 주요 인물·단체와의 협력을 이뤄내 전국적 네트워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.

위원회는 문화콘텐츠 각 분야의 전문가를 부위원장으로 위촉할 예정이다. 더불어 상임공동본부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·김준혁·이기현 국회의원과 이우종 (사)문화강국네트워크 이사장을 위촉했다.

유홍준 위원장은 “K문화강국위원회를 통해 예술인의 이야기, 창작자의 고민, 업계의 고충, 국민 한 사람 마다의 문화적 순간들을 천천히, 그러나 깊게 듣겠다” 라고 포부를 밝히며

“위원회는 후보와 유권자 사이에 문화로 이어진 길을 놓겠다. 그 길에서 이야기하고, 듣고, 함께 설계하는 문화정치의 시작이 이뤄지기를 바란다” 는 의지를 드러냈다. /끝/